

# V11 '虎시탐탐'



프로야구 개막 D-1... 베일 벗는 '김기태표 야구'

## KIA, LG와 홈 개막전 양현종 vs 소사 선발... 팀 2100승 등 예상 기록 풍성

겨우내 준비된 '김기태표'의 전력이 베일을 벗는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오후 2시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와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KIA는 10개 구단 유일의 토종 선발 양현종으로 안방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맞는다. 지난해 홈 개막전 선발로 등판해 챔피언스 필드에 선 첫 투수로 이름을 올렸던 양현종은 이번 시즌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개막전 8연패까지 찍었던 KIA는 2013시즌 개막전에서 넥센과의 일치락뒤치락 하는 승부 끝에 홈런 포함 5타점을 올린 나지완의 활약 속 10-9로 이기며, 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지난 시즌에는 대구에서 만난 삼성을 상대로 호수비 퍼레이드 속에 2-1로 승리를 거두며 개막전 2연승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16승을 올리며 에이스 역할을 했던 양현종이 특히 강했던 안방에서 팀의 개막전 3연승을 위해 LG 유니폼을 입은 소사와 맞대결을 벌인다.

차일묵과 신중길의 부상으로 구상해두었던 베스트 라인업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 포수는 이성우와 이흥구. 노련한 이성우가 양현종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최희섭과 필이 대기하고 있는 1루 자리에 따라 지명타자의 이름이 달라진다. 절실함으로 무장한 최용규와 노련

한 박기남이 2루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야수진의 다크호스인 강한올이 유격수로 나설 예정이다. 주장 이범호는 이번 없이 3루를 수성한다.

외야는 박준태의 어깨와 이호신의 발, 김다원의 힘을 묶어 신중길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격 극대화를 노린다면 김원섭을 중심으로 해 나지완 김주찬이 동반 출격하는 방법이 있다.

올 시즌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풍성한 기록행진이 기다린다. KIA의 기록들도 준비되고 있다. KIA는 앞으로 17승을 더하면 통산 두 번째로 2100승을 채우는 팀이 된다. 사상 첫 팀 2만5000탈삼진도 기다린다. 남은 탈삼진은 908개. 지난 시즌 KIA 투수들은 128경기에서 896개의 탈삼진을 뿔아냈다. 돌아온 윤석민은 51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면 1000K를 완성한다.

'호랑이 군단'의 기동력도 관심사다. 앞으로 61차례 베이스를 훑쳐내면 가장 먼저 4100도루 고지를 밟게 된다. 김주찬은 10년 연속 두 자릿 수 도루와 사상 첫 10년 연속 20도루에 도전한다.

베테랑들의 도전도 준비됐다. 이범호가 1500경기 출장(-10·통산 33번째)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김원섭도 1000경기 출장에 5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나지완은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위한 예열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임기준·홍건희 첫 개막전... "반갑다" 최희섭

### KIA 엔트리 특별한 이름들

지난 25일 밤 챔피언스필드에 불이 밝혀졌다. 개막에 앞서 야간 경기에 대비한 야간 연습경기가 진행되면서 오랜만에 조명탑에 불이 켜진 것이다.

24일 스프링캠프 선수단 전원을 소집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한 KIA는 25일에는 선수단 규모를 줄여 야간 훈련을 펼쳤다. 개막전에 출격할 정예멤버들이었다.

선수들은 어둠이 내린 하늘을 가르며 뻗어가는 하얀 공을 보면서 "드디어 야구를 하는 것 같다. 개막이 실감난다"며 입을 모았지만 훈련에 나서는 마음은 조금씩 달랐다.

베테랑들의 목소리에서는 새 시즌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라운드에 대한 애착함이 묻어났다.

주장 이범호는 "벌써 16번째 시즌이다. 이전 얼마나 더 그라운드에 오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웃음을 보였다.

포수 이성우도 "야구를 하게 될 시간보다 해운 시간이 이제는 더 많다. 얼마나 더 이 순간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담담한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베테랑들과 달리 개막전만 기다리게 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2010년 신고선수로 입단해 단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던 최병연은 처음으로 조

명탑이 켜진 경기장에서 개막을 준비했다. 꿈만 같은 그라운드 선 최병연에게는 긴막이 필요없었다. "설렌다"는 짧은 말에 모든 것을 담아 개막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예비역으로 돌아온 좌완 임기준과 우완 홍건희도 처음으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기준은 지난해 퓨처스 올스타전에 출전하면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선 적은 있다.

임기준은 "마운드가 편했었다. 많이 기대해주시는데 뭔가를 기대 하지 않고 해운 대로 편안하게 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홍건희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좋게 봐주셨다. 스프링 캠프에서 좋지 못했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개막전에 초대를 받은 우완 문경찬의 표정도 밝았다. "기대도 못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경기를 뛰어봐야 실감이 날 것 같다. 불이 켜진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씩씩하게 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언제 개막 엔트리에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이호신과 군복무 등으로 4년 만에 복귀한 최용규, 방향을 끝낸 최희섭도 처음 챔피언스필드에 서서 특별한 개막을 맞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7인 정예멤버를 확정한 KIA 타이거즈가 지난 25일 챔피언스필드 조명탑을 켜고 야간 경기에 대비한 야간 훈련을 진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